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개최

16~19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서 드론 라이트쇼·축하공연·체험 등 다채

남원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드론 축제인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제전은 국토교통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하며, 대한민국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인 ‘2025 K-Drone to World Festival’의 피날레 행사로서, 드론·로봇 산업의 미래와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개막식은 16일 저녁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시작된다. 밤하늘을 수놓는 환상적인 장관과 함께 EXO 시우민, 프로미스나인, 박지현, 유스파어 등 인기 K-POP 아티스트들이 축하 공연을 펼치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폐막식은 19일 시상식과 함께 색소폰 퍼포먼스 밴드 ‘색소가이즈’의 공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포스터

연, 어린이 인기 콘텐츠 ‘핑크퐁 심어 뽕쇼’ 등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국화꽃 화단과 대형 꽃 조형물, LED 빛 터널이 설치돼 가을의 정취를 더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되며, 총 4가지 핵심 테마로 마련. 첫 번째는 국산 드론기체를 활용한 DFL(Drone Formula League) 국제 드론 레이싱대회를 비롯해 드론 축구·농구, 청소년 드론 로봇대회 G-PRC, 시민 참여형 드

론 방제·수색대회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진다. 총 30여 개국에서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2번째는 80여개 국내 유망 기업 및 기관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포럼을 통해 기술 동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3번째로 진로·직업·과학·수학·천문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200여 개의 체험 부스와 어린이를 위한 핑크퐁 팝업 놀이터 등 전 세대를 위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마지막 4번째는 남원의 특산물 백합과 원푸드, 향토 음식은 물론, 다문화 4개국의 먹거리와 푸드트럭존이 운영되어 풍성한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스마트 돌봄 도시 남원’ 구축 최선

시,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중간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14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중간보고회를 갖고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남원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살던곳에서의 노후를 위해 경로당 내에 ICT 기반 장비를 도입해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안전·소통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